

## 새로운 鄉土史의 研究對象과 方法

愼 鏞 廈\*

### I

필자는 지금까지 鄉土史에 대한 본격적 연구를 하나도 수행하지 못하고 주로 中央政治의 社會史만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느낀 필자 자신의 한계점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鄉土史의 필요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편의상 이를 ① 향토사의 대상 분야 ② 연구방법 ③ 연구주제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古代부터 中央集權的 정치체도가 확립되어 오늘날까지 장구한 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中央中心이었고 地方輕視의 병폐가 누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서울>에 集中되고 서울의 中央은 자기가 전체인 것처럼 착각해 왔으며, 地方鄉土에 대하여 中央事大主義를 조성해 왔습니다. 이것은 地方自治制度가 발전되지 않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되어 우리 韓國歷史는 中央의 최고위 정치엘리트 중심의 中央政治史가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그다지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中央集權制 하에서 중앙정치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물론 中央政治史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國民의 歷史를 전체로 하는 한, 이것은 歷史의 극히 一部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역사연구의 이러한 경향으로 종래의 地方鄉土史마저도 中央政治史

\* 서울대 교수 · 한국사회사

의 延長으로서 中央通史에 오를만한 大事件, 中央과 地方의 關係, 정부가 지정한 文化財와 史蹟, 지방행정제도, 중앙일류의 英雄과 文人……등에 많은 관심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地方鄉土史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필자는 社會史를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그 대상영역으로 「평범한 국민이 날마다 겪으면서 활동하는」 「日常社會生活의 歷史(history of everyday social life)」를 구조의 역사 및 구조변동의 역사와 함께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地方鄉土史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날마다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實生活의 歷史」, 평범한 국민들의 회로에락이 직접 얽혀 있는 實生活의 歷史, 평범한 국민들이 살아 움직이는 實生活의 歷史가 권력 엘리트들의 中央政治의 歷史보다 덜 중요한 이유가 조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조선후기 實學者들의 문제의식의 하나는 국민의 實生活의 改善에 있었읍니다. 우리의 학문이 實學을 계승한다면 평범한 국민들의 實生活의 歷史는 역사연구의 중심적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歷史의 民主化(democratization of history)」를 주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地方鄉土史는 지방 향토 民衆들의 日常生活의 歷史를 중심 대상분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향토 민중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地理와 남긴 考古는 물론이요, 그들의 共同體였던 마을의 역사, 향토 민중들의 衣·食·住, 그들의 농업·어업·상업·공업……등 생산과 직업생활, 그들의 勞動, 그들의 產業, 그들의 災害와의 싸움, 그들의 中央官僚에의 대항, 그들의 異民族의 침략에 대한 투쟁, 그들의 교육과 학교,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오락, 그들의 문화와 풍속, 그들의 心性, 그들의 예술과 민담, 그들의 가족제도와 친족제도, 그들의 향토애와 祖國愛, 그들의 예술……등이 어떠한 中央政治와의 관련 보다도 더 중심적으로 고찰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人物을 연구하는 경우에도 流配은 中央政界의 巨物 보다도 地方鄉土의 발전과 향토 民衆의 實生活에 공헌한 지방의 匠人, 教育者, 技術者, 농부, 漁夫, 노동자, 문인, 화가, 학자, 종교인, 의사……등이 더 귀중하게 중심적으로 고찰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생 萬德이 문인정치

가 金正喜 보다 더 작은 비중으로 연구되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鄉土史는 地方鄉土 民衆의 삶의 質을 높일 수 있고, 지방향토민의 自發性과 自主性에 기초하여 민중적 기반을 가진 역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地方鄉土民이 사랑하는 歷史, 향토민과 더불어 共有하는 歷史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鄉土民衆史가 없는 地方鄉土史는 참다운 鄉土史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향토사는 그 연구의 대상분야의 폭과 깊이에 대변혁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무엇 보다도 주의해야 할 것은 地方鄉土史는 中央政治史·一般史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鄉土史는 그 자체가 獨自的인 역사학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獨自性을 갖고 獨自的 연구분야를 자신을 갖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필자의 경험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교육사의 경우에 개화파들은 막대한 <재정자금>으로 <서울>에 漢城師範學校, 外國語學校, 그리고 다수의 官立小學校들을 설립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읽으면서 개화파의 사상과 정책을 알았지만 깊은 감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문제의 자료를 수집하는 우연한 기회에 禾北學校의 설립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禾北의 洞民들이 그들의 子女들에게 新知識을 교육할 필요를 알게 되자 有志들은 계획을 세우고 洞民들은 누구나 자기의 경제능력에 따라 自發的으로 약간의 誠金을 모으고, 洞民들이 자발적으로 터를 닦고 出役을 하여 校舍를 지었으며, 마을 몇 안 되는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무보수 教師가 되어 마침내 洞民들의 힘으로 禾北學校를 훌륭히 설립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禾北의 洞民들은 자녀들은 학교에 보내고, 성인들인 자기 자신들은 다시 禾北學校 안에 다시 夜學을 습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禾北學校를 일제 당국이 무상으로 접수한 것이 오늘의 禾北國民學校입니다. 이것은 洞民들이 자발적으로 衆力을 모아 세운 학교이며, 현재 재주도의 역사가 오랜 학교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세워진 서울의 관립학교들 보다 그 학교의 역사를

읽을 때 더 감동을 주는 것이며, 실패한 民立大學 설립운동보다 더 고무적인 것입니다.

中央政治史의 영역에서는 禾北學校의 歷史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獨自的 歷史로서의 鄉土史에서는 이러한 역사야말로 鄉土民의 自發性과 自主性에 기초하여 鄉土民의 삶의 質을 높일 수도 있고 民衆의 사랑을 받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鄉土愛와 향토에 대한 높고 깊은 자부심을 길러주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鄉土史에서는 이러한 작은 학교의 역사가 서울의 漢城師範學校의 歷史 보다 더 귀중하고 중심 대상분야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눈을 밖으로 돌리어 외국의 예를 보면, 地方鄉土史가 가장 발전된 나라가 프랑스 史學界이며, 프랑스에서 아날學派 또는 社會史學派가 형성되어 세계史界를 방법론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그들의 地方鄉土史 연구의 발전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아날學派는 地方史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기초위에다 프랑스國史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구 대상은 地方民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큰 主題로서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革命의 世界的 大家인 르페브르(G. Lefebvre)는 이 주제의 심층을 연구하기 위하여 「노르」郡이라는 지방에 들어가 한 郡의 농민층의 地方史 연구에 무려 20년간의 靑春을 다 바쳐서 「革命期의 노르郡의 農民」이라는 저서를 써서 地方史 연구를 통하여 프랑스革命史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世界的 大家가 되었습니다.

거듭 강조하거나 地方鄉土史는 中央政治史·一般史의 한 부분이 아니며 그 자체가 獨自的 연구영역일 뿐 아니라, 도리어 地方鄉土史야말로 全體民族史의 뿌리요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地方鄉土史가 풍부하게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民族史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폭과 두께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鄉土史는 中央政治史·一般史와는 달리 獨自的 연구 대상 분야를 개척하여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鄉土民의 生活과 傳統을 무엇보다도 尊重하는 地方鄉土史와 이를 중심으로 한 地方鄉土文化가 풍부히 발전될 때

民族文化와 民主主義의 뿌리가 깊이 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 II

다음으로 鄉土史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첫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날學派가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文獻考證史學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여지서 문헌고증사학을 극복한다는 말은 문헌고증사학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文獻考證은 역사학의 방법으로서 여전히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地方鄉土史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文字로 기록된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대부분이 소수의 支配層에 의하여 支配層 중심으로 支配層의 일을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支配層의 협소한 안목과 편견에 의거하여 기록한 것이 많기 때문에 客觀的 全體的事實에 대한 기록으로서는 매우 좁은 限界를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記錄으로 남겨 있는 대부분이 中央政治나 行政에 관한 것들이며 支配層의 이데올로기로 굴절되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엄정한 史料批判을 거친 후에도 사실의 설명에 근본적인 限界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地方鄉土史와 基層民衆의 歷史에 이르러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鄉土史의 研究에 있어서는 文獻考證의 方法에는 더욱 큰 限界가 있는 것입니다.

地方史 연구에서 출발하여 프랑스 歷史에 새로운 方法論을 개척한 아날學派는 그들이 地方史研究에서 고안한 방법을 이제는 中央政治史·一般史에도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錄音器와 카메라를 들고 ① 生存 經驗者의 回顧의 聽取와 녹음, ② 地域社會의 「傳承」의 청취와 녹음, ③ 口傳歷史(oral history)의 발굴, ④ 기록유물은 물론이요 各種 非記錄 遺物의 수집과 분석, ⑤ 민요·노래·창가·가사 등에 포함된 의미의 수집, ⑥ 그림, 벽화, 가구·도구……등에 새겨진 그림·조각……등의 수집, ⑦ 鄉土住民의 생활 속에 남아 있는 遺制 樣式의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⑧ 言語의 분석을 통한 역사의 발굴, ⑨ 集團傳記方法……등 여러가지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아날學派의 이러한 方法들은 그 자체가 프랑스 地方史 연구과정에서 발전된 方法들이며 제주도 鄉土史의 연구에도 새로운 方法으로서 매우 유효하게 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鄉土史 연구가 이러한 方法들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큰 비중으로 활용되면 종래 밝혀지지 않는 많은 새로운 사실이 더욱 밀도있게 깊이 밝혀지고 鄉土史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며, 鄉土民의 生活와 傳統이 더욱 존중되는 새로운 鄉土史가 발전될 것입니다.

향토사의 方法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社會科學과의 협동 및 과학적 方法의 도입입니다. 鄉土史 연구는 非文獻的 方法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文化人類學, 考古學, 言語學, 社會學, 地理學, 人口學, 經濟學, 神話學, 統計學 등의 협동이 필요하며, 자연조건과의 관련을 고찰하기 위하여 自然科學의 도움도 매우 크게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과학적 方法에 의한 因果分析, 動態分析, 機能分析……등의 설명이 제시될 때 鄉土史는 더욱 큰 설명력과 과학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 III

끝으로 研究主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中央政治史·一般史는 대부분을 專門的 歷史學者가 연구하는 것이나, 鄉土史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鄉土史에서는 ① 전문적 역사학자 이외에도 ② 鄉土史家 ③ 日曜史家 ④ 週末調査家 등이 있습니다.

鄉土史家는 그 歷史鄉土의 歷史를 독립된 단위로 하여 연구하는 전문적 역사가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鄉土史家들의 업적과 역할이 매우 커서 地方鄉土史는 물론이요 中央政治史와 一般史의 學說을 바꾸어 놓은 업적이 부지기수입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프랑스에서는 ③ 日曜史家 ④ 週末歷史調査家라는 거대한 집단이 있어서 향토사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전문적 역사가로서, 教師, 會社員, 公務員, 主婦……등 일반 市民으로 구성되어 주말이나 일요일에 바캉스나 골프나 오락장, 운동장에 나가지 않고 취미 그

자체를 鄉土의 歷史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답사하며 편집하는 연구자들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전문적 日曜史家, 週末歷史調査家들의 편찬한 『歷史調査書』가 불멸의 업적이 되어 전문적 역사학자 보다는도 더 큰 공헌을 하고 고전이 되어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 역사학자들의 역사해석에는 관점의 변화에 따라 그 업적결과에도 큰 변화가 있게 마련이지만, 이러한 日曜史家, 週末歷史調査家の 『歷史調査書』는 사라져가는 역사적 자료를 발굴해 모은 실증자료발굴의 성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역사해석의 변화와 관계없이 불멸의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② 鄉土史家 ③ 日曜史家 ④ 週末歷史調査家들의 역사연구는 鄉土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鄉土民에 대한 內面的 理解를 갖고 鄉土의 內實의 문제로서 歷史眞實을 발굴하기 때문에 전문적 역사학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역사적 사실도 발굴해 내어 感動的 歷史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배로운 고장이요 우리들의 故鄉이기도 한 제주도의 鄉土史가 새롭게 발전하여 여기에 뿌리를 두고 찬란한 제주도의 鄉土文化가 꽃필 것을 기대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